

‘소록도 천사’ 마리안느 수녀 10년 만에 고향 온다

5월 소록도병원 100주년 기념식 참석

소록도에서 40여년간 한센인을 위해 봉사하다 휴양지 고향 오스트리아로 돌아간 두 ‘할매 수녀’ 중 한 분이 소록도를 다시 찾는다.

고흥군은 지난 31일 “소록도병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오는 5월에 ‘할매 수녀’ 두 분을 모두 초청하려고 했지만 마가렛 수녀의 건강이 좋지 않아 마리안느 수녀만 소록도를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리안느 수녀도 최근까지 암 투병으로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현재 상태는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흥군은 소록도 한센인들에게 ‘할매 수녀’로 불리던 마리안느, 마가렛 수녀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리고, 그들의 희생정신을 되살릴 수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선양사업을 검토 중이다.

누구도 다가서려 하지 않았을 때 비닐장갑 하나 끼고 한센인을 간호했던 이들 외국인 할매 수녀의 고귀한 봉사정신과 소록도에서의 삶이 소록도병원 개원 100주년을 맞아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소록도성당의 프란치스코 주임신부가 두 할매 수녀의 삶을 정리해 놓은 메모를 토대로 살펴본 이들의 삶은 단순한 봉사를 초월해 인류애를 담고 있다는 고흥

1962년 소록도에 와서 43년간 한센인 헌신적 간호 마가렛 수녀는 건강 악화로 방문 못해 郡,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 추진

군의 설명이다. 고흥군이 할매수녀의 노벨상 후보 추천을 진행하는 이유다.

두 할매수녀는 각 20살을 넘긴 훗날 나이에 한국으로 들어왔다. 당시엔 한국 전쟁이 멈추고 전 국토가 폐허가 되던 때였다. 두 수녀는 1952~1955년 오스트리아 인스브룩의 간호학교에서 같은 학년 같은 방을 쓰며 기숙사 생활을 함께했던 친구 사이이다. 두 수녀는 졸업 후 각자의 길을 걷다가 나주성당의 초대 신부인 해롤드 헨리 대주교의 주선으로 다시 만난다. 당시 조창원 소록도병원장은 낙태 중 지 후 소록도에서 태어난 한센인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음을 헨리 대주교에게 호소했고 5500명에 달하는 환자를 치료할 인력도 부족한데 아이들을 돌보는 건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다. 헨리 대주교는 로마 교황청을 방문하



지난 1970년 소록도에서 한센인을 돌보던 마가렛(뒷줄 왼쪽 첫번째)-마리안느(뒷줄 오른쪽)수녀가 동료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면서 오스트리아 대주교에게 소록도 봉사인력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고 마리안느·마가렛 두 수녀가 뽑혔다. 두 수녀는 헨리 대주교와 5년 계약으로 1962년 2월 소록도에 왔지만 그 계약은 43년이란 긴 세월로 이어졌다.

두 수녀의 원래 임무는 한센인이 낳은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었지만 헨리 주교의 뜻에 따라 인도에서 6개월간 한센병에 관한 교육을 받은 뒤 한센인 치료와

구호에 전념하게 된다.

이들은 한센병 교육 후 소록도 병원에 다시와 찾아와 첫 활동으로 한센인과 함께 식사하기를 실천했다. 이 사건은 ‘나병환자’라며 이들을 격리하고 멀리하며 국내 의료진조차 직접 치료를 꺼렸던 당시 소록도 전체에 큰 충격을 줬다. 특히 외국인 의료진이 환자의 상처 부위를 맨 손으로 직접 만지며 약을 발라주는 치료 과정은 나병환자와 함께 밥 먹는 모습과

함께 세상에 퍼지면서 한센병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는 계기가 됐다.

‘미친 짓’이라며 만류하고 손가락질했던 병원의 다른 직원들도 6개월이 지나도 이들 외국인에게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자 그때부터 한센인들을 ‘그냥 환자’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후 두 수녀의 소록도에서의 삶은 종교 수행을 넘어선 고된 그 자체였다고 한다.

두 수녀는 매일 새벽 5시부터 병실을 돌며 따뜻한 우유를 환자들에게 먹이는 것으로 하루를 열었고, 새벽 기도회와 미사를 마치고 병원 옆 한센인 마을에서 병원에 찾아온 환자들을 위해 음식을 내주고 한센병 치료제인 람프렌과 약을 주는 일을 반복했다. 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가 있으면 종교에 구애받지 않고 밤마다 음식을 만들어와 직접 먹이기도 했다.

5년간의 봉사와 헌신으로 소록도의 환자 수가 3000명으로 떨어지자 그동안 함께 치료활동을 투신했던 다른 외국 의료진은 1971년 4월 그들이 사용했던 수술 도구 등을 남기고 귀국했다. 하지만 그들 중 마리안느·마가렛 수녀는 소록도에 남아 한센인들을 돌보는 일을 계속했다.

이들이 극동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봉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고국에 알려지

자 오스트리아 부인회의 재정지원도 받았다. 이 도움으로 소록도 병원 초창기 영아원, 결핵병동, 정신과병동, 목욕탕 건물이 세워졌다. 의료인 집안이었다 마가렛 수녀의 가족도 소록도 병원에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약품을 지원하는 것을 아끼지 않았다.

두 수녀는 인도에서 돌아와 2005년 귀국할 때 까지 지금은 ‘마리안느 마가렛’으로 이름 지어진 작은 관사에서 검소하게 생활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두 수녀는 ‘할매 수녀’로서 은퇴의 나이를 넘어 70대의 고령에 접어들어 2005년 11월 소록도를 갑자기 떠났다. 누구에게도 미리 알리지 않고 편지만을 남겼다. 그것도 편지를 관사에 두지 않고 광주에 와서 우편으로 소록도에 보냈다.

두 수녀는 편지를 통해 “떠남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해도 헤어지는 아픔은 그대로 남기에 편지로 대신한다”며 “자신들이 다른 친구들에게 항상했던 말, 제대로 일할 수 없고 부담을 줄 때는 본국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실천할 때”라고 떠나는 이유를 설명했다. 두 수녀는 “부족한 외국인이 큰 사랑과 존경을 받아 감사드린다”며 오히려 감사한 마음을 편지에 담아냈다.

고흥=주작기자 gjuu@연합뉴스

광주일보,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 선정

광주일보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에 선정됐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우병동)는 지난 29일 ‘2016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로 광주일보를 비롯한 지방일간지 28개사와 지역주간지 40개사 등 모두 68개사를 확정, 발표했다.

올해로 창사 64주년을 맞은 광주일보는 선도적인 지면혁신과 경영개선 등을 바탕

으로 지역 대표신문으로서 위상을 지켜오고 있다.

광주일보는 이번 선정을 계기로 기획취재, 지면 개선, 시민기자 활용, 연수교육사업 등 지면 경쟁력을 강화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경영건전성, 제작·취재, 판매광고 관련 윤리강령 준수, 한국ABC협회 가입 등을 평가해 지원대사를 선정한다. /박기용기자 pboxer@



제12회 영·호남 시·도지사협력회의가 지난 29일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호텔인터불고 대구에서 열린 가운데 (왼쪽부터) 김일재 전북 행정부지사, 홍준표 경남지사, 김기현 울산시장, 이낙연 전남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윤정환 광주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김관용 경북지사 등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8개 영호남 광역단체장 “남해안철도 건설 앞당기자”

윤정환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지사를 비롯한 8개 영·호남 광역단체장들이 지난 29일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남해안철도(보성~목포) 조기 건설 등 공동 현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대구 호텔 인터불고에서 개최된 제12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 참석한 광역단체장들은 ‘공동정책 건의과제’와 지역균형 발전과제’ 지속 추진을 건의하는 내용의 8개 시·도지사 공동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동 성명 발표에 참

가한 지자체는 광주시, 전남도, 전북도, 부산시, 대구시, 울산시, 경남도, 경북도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글로벌 시대 영호남지역 발전을 위한 ‘남부권 초광역경제권’ 구축과 남해안철도 조기 건설 등 6개 사업을 공동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동 현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영·호남 지역 간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고 상호협력력을 통해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간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이날 회의에서는 또 이낙연 지사가 제9대 영호남 시·도지사협력회의 의장으로 당선됐다. 임기는 2017년 1월까지 1년이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양 지역의 긴밀한 유대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동서 화합과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998년 전남도 주도로 결성됐다. 이후 8개 시·도가 윤리제로 회의를 개최해오고 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2015년산 쌀소득직불금 ha당 100만원씩 지급

지난해 수확기 평균 쌀 값이 목표가격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2015년산 쌀소득보전 변동직불금이 ha당 100만원씩 지급된다.

전남도는 31일 “2015년산 2월 1일자 평균 쌀 가격이 80kg 가마당 15만699원으로 결정돼 목표가격(18만8000원)보다 3만1740원이 적어 고정직불금 단가(1만5873원)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 1만5867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남지역 전체 쌀변동직불금 지급액은 150억원으로 농가당 평균 지급액은 135만원이다. 11만4745농가에 2월 5일까지 50%, 3월 중 50%를 분할 지급한다. 고정직불금을 포함한 쌀 소득직불금 지급액은 농가당 평균 288만원으로 농가 소득 보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유현석기자 chadol@

本 社 人 事

- ▲김민준 : 전북취재본부 부안주재 차장
- ▲임동현 : 서부취재본부 부안주재 기자

‘교과서 최다 등장 장진’ 1면에서 계속

특히 강진의 문화원형은 중·고교 국사 및 국어 교과서에 다양하게 서술돼 학생들은 물론 모든 국민들에게 강진이란 고장의 인문학적 이미지가 친밀하게 전해지고 있다는 게 교과서의 설명이다.

대표적으로 ‘중학교 국어’교과서(동아출판사, 2013) 19쪽에 김영랑의 시 ‘달밤에 속삭이는 햇발’과 시인에 대한 문학사적 가치 등이 상세하게 서술돼 있다. 또 ‘고등학교 국사(상)’교과서(1998) 160쪽에는 강진에서 발굴된 청자 가마터의 도판과 함께 고려청자의 문화적 가치와 가마터의 보존 실태 등이 기술돼 있다.

특히 다산초당은 교과서가 수차례 바뀌는 과정에서 항상 단골로 게재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게 교과서의 분석이다. ‘고등학교 국사’교과서(2003) 310쪽을 보면 다산초당 사진과 강진으로 유배돼 ‘목민심사’ 등 500여권의 저서를 남긴 다산의 애민사상 등이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노성대 교사는 “중·고교 교과서에 백제 문화권이나 신라문화권 도시들이 몇 차례 거론되고 있지만 강진처럼 다양한 각도에서 소개되는 사례는 없다”면서 “강진이 교과서에 많이 소개되는 것은 강진이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유산의 보고임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 4성급 ★
호텔건물매매

현재 노인요양시설 허가 취득

- 엘리베이터 설치 및 리모델링공사 완료
- 목포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위치
- 4성급호텔, 노인병원 등 즉시 사업가능 (커피숍은 휴업중)
- 주차장 및 부속상가 건물 3동

건축면적 7,091㎡ (2,149평)
토지면적 3,478㎡ (1,054평)

- 매매가격 상당 후 결정
- 현장 답사 요망

목포시 대의동 2가 1-9번지의 3필지(지상 9층 지하 1층)

연락처 061-242-7782, 010-9868-5151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99-7호)

세일신용정보(주)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상생카드, 산은캐피탈, 한국캐피탈, 전북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차용증,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강제집행 등 법 조치를 하고 싶은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
 - 가압류/소송/집행까지
 - 전담 법무사와 Non-stop 서비스
- 민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 결정을 미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 빠른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비용 **無** ☑ 착수금 **無**

영업사원 모집

대표전화 : 062) 531-5990 010-2069-5958

세일신용정보(주)

2016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2271)	광주교육대학교(1371)
개강일시	-금요일 오전반 2016. 3. 4(금) 09:10 (초급반) -금요일 오후반 2016. 3. 4(금) 14:10 (중급반) -토요일 오전반 2016. 3. 5(토) 09:10 (특급반)	-월요일 오후반 2016. 3. 7(월) 14:10 (초급반) -목요일 오전반 2016. 3. 31(목) 09:10 (중급반) -목요일 오후반 2016. 3. 31(목) 14:10 (초급반) -토요일 오후반 2016. 3. 5(토) 14:10 (특급반)
모집기간	2016. 1. 27(수)~3. 5(토)	2016. 1. 27(수)~3. 5(토)
수업기간	2016. 3. 4(금)~2016. 8. 13(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6. 3. 7(월)~2016. 8. 13(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오전반 09:10-13:00 -오후반 14:10-18:00	-오전반 09:10-13:00 -오후반 14:10-18:00
수강료	₩36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148-107-307803	₩360,000 (예금주:광주교대) -국민은행:773901-01-476736
수료후 특전	-1.2년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 부여 -각 현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별과 후 교육관서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범부특기회 부여)	-1.2년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 부여 -각 현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별과 후 교육관서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범부특기회 부여)
문의	-문 의:062)950-3582~4 -지도교수(선생부):010-3614-4160	-문 의:062)520-4243 -지도교수(선생부):010-3614-4160

원서교부 및 접수처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ac.kr

말하는 법 1%만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적이 올라가게 되어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월등합니다.**

면접준비실전과정

면접 준비없이 나간다는 것은 위험천만합니다. 본원에서는 기업체·금융사·임용고시·경찰직 등등 취업을 목적으로 한 면접준비 실전과정을 통하여 취업을 맞춤 지원합니다.

★ 각 분야별 강사 파견 :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 062) 222-2255,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